



## “상호작용이 활발한 강의수업” 이렇게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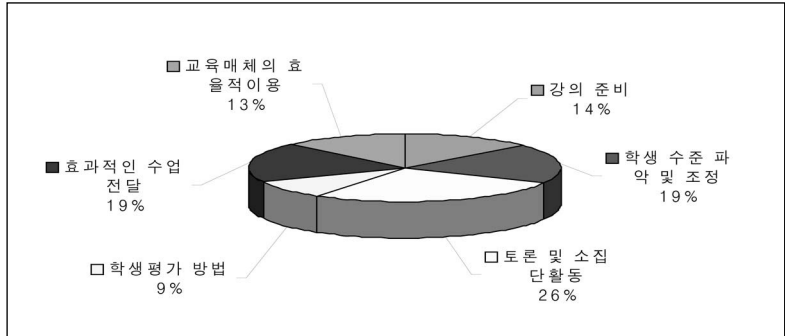
‘일진일퇴의 공방이 오가는 숨 막히는 축구 경기, 답답해진 감독이 (벤치를 박차고)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가 선수의 볼을 빼앗아 적진으로 드리블한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았는가? 실제 시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도 선수들의 시합에 끼어들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학의 수업이다. 무언가 배워야 할 학생은 편안하게 앉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한다. 수업의 목표가 학생의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가르침에 있는 것 같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기억력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한 것”은 90% 이상 기억하지만 읽기만, 듣기만, 보기만 한 것은 10~30% 이상 기억하기 어렵다고 한다. 학생이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참여해서 배운대로 해보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교수중심의 교육방법은 학생 스스로 혹은 학생들끼리 학습하는 것보다 수업효과가 높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대부분의 교수자들도 이를 알고 있지만, 우리 수업 현실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여전히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교수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222명의 교수, 강사, 박사과정 학생에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것은 “수업시간 중 토론을 활성화하고 소집단 활동을 이끌기” 이었고, 그 다음이 “학생들의 수준과 학생 반응을 파악하고 조정하기”와 “수업내용

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교수 주도의 수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수업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여러 자리에서 토로하고 있다. 위의 조사에서 두 번째로 어렵다고 대답한 ‘학생수준에 맞추기’와 ‘효과적인 내용의 전달’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전통적으로 일방적 강의를 들어왔고 또 그렇게 강의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토론 및 소집단 활동 이끌기와 같은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의 확대’이다.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의 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걸까? 수업을 토론과 학생 그룹 활동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상호작용을 확대하라고 하면 이런 생각 때문에 지레 부담스럽게 되고, 만만치 않은 수업 부담 때문에 이 문제를 아예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가능한 수업의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하려 한다. 그 방안으로 강의방식의 변화를 통한 방안과 질문과 토론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게시판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간단한 Tip을 제공한다.

### 강의방식의 변화를 통한 상호작용의 확대

강의는 가장 일반적인 수업의 형태이다.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확대한



다고 해서 당장 모든 수업을 토론 방식으로 바꿀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틀에 박힌 강의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수업에 도입한다면 훌륭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① 전 시간의 강의 내용이나 읽기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한다. 이때 교수자는 그 날의 주제를 진행하고, 새로운 과제를 수업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수업 첫 시간에 이러한 수업 참여를 요구하겠다고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② 수업 중 2~3번 정도 학생들이 요점을 정리하도록 하고, 강의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한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잘 정리해서 적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상은 번번이 빗나가곤 한다.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은 학생들이 강의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준다. 수업이 끝나기 몇 분 전 책을 덮게 하고, 수업 내용을 상기하여 그 내용을 도표나 식으로 나타내도록 하면 해당 분야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된다.

③ 학생들이 그룹을 구성하여 강의노트를 정리하고 강의의 핵심 내용에 대해 토론하도록 할 수 있다. 각 그룹은 자신들이 확실하지 않다고 느낀 것을 수업 마지막 몇 분간 발표하거나 다음 강의 시간이 시작할 때 언급한다.

## 질문과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의 확대

강의 도중에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서 교수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바로 질문과 답변을 격려하는 것이다. 질문은 상호작용을 자극하며, 강의 내내 학생들을 계속 주의 집중하게 하며, 특히 주제가 복잡하고 강의가 길 때 효과가 높다. 다음과 같은 질문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 강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 전체 그룹에게 질문을 하라. 학생들이 자원해서 대답하게 되는 경우, 교수자는 몇몇의 학생이 토론을 독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특별한 학생을 타깃으로 질문해라.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이 방법은 더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
- 질문하고 대답할 때 학생의 이름을 불러라. 이것은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
- 학생의 대답에 긍정적인 강화를 주라. 칭찬은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더 많은 학생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 학생의 질문을 정리, 반복하고 모든 학생이 토론을 들을 수 있도록 확인하라.
- 학생이 질문 했을 때 가능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관련된 질문을 다시 하여서 질문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 대답이 맞습니까?”, “왜 맞다고(혹은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와 같은 질문이 유용하다.
- 질문을 한 후에는 반드시 반응을 받아낸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응답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높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일 경우 학생들에게 질문에 답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라.
- 질문과 답변의 핵심은 패턴을 피하는 것이다. 교수자가 항상 똑같은 패턴을 사용해서 묻고 답한다면, 가르치는 기술은 제한된 효과밖에 발휘하지 못한다.

## 게시판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 확대 방안

토론을 위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강의실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고 싶을 때, 말하는 기술이 부족한 학생을 배려하고 싶을 때 온라인 토론이 효과적이다. 온라인 토론의 기술은 간단하다.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강의가 끝난 후 그 시간의 강의 내용 혹은 이해가 안 된 부분을 다음 시간 전까지 A4 1~2장 내외로 정리하여 게시판에 올리게 하고 학생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좀 더 토론을 확대하고 싶다면 수업 전에 읽기 자료를 읽고 2~3개의 질문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답변하게 하여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다. 수업 전에 자료를 읽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을 게시판에 올리게 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지적 참여를 촉구하는 방법도 활용 가능하다. 이 방법은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준비도를 함께 높이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토론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좋은 수업으로 평가받았다.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조화를 이룬 좋은 사례라 하겠다.